

# 與野, 쟁점법안 '입장 차'... 영수회담서 상정안건 조정될 듯

농산물 가격안정화법 등서 대립 본회의 일정 조정도 합의 못해 與, 채상병 특검 고수 시 협의 어려울 野, 영수회담 협상서 '3+1' 의제 던져 거부권 자체 포함... 수용 여부 관심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농어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

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

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조흥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본회의 일정 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날(23일) 만

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쟁점법안과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 처리를 고수할 경우 협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영수회담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경책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친윤' 이철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 윤곽

與 국정운영 부정평가에 우려 목소리 野 후보군 압축에도 큰 갈등 없어

여야가 정당의 입법·정책 실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이재명계를 상징하는 후보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있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의 원 등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직까지 내려놨는데, 입장문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안철수, 이철규 당선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후보가 박 최고위원으로 압축되는 모습에도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의 대명사인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몸풀기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당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위로했다. 다음날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세 모으기'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며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중책을 맡아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할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국민의힘 서울강동을 당협위원장인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답답하면서도 이견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것은 결국엔 친윤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당이 친윤계로 흘러가면서 과거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었다가 친윤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푹푹 뭉쳐서 선거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 대표는 건장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두둔했다.

/박태홍 기자

## 오세훈, 與 낙선·당선자 만나... 차기 대선 염두한 '세 모으기'

서울 지역 野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 오, 이번 만남 대한 확대 해석 경계 차기 대권 지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에 무너지며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차기 대선을 염두한 '세 모으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

역 총선 낙선자와 만나고 22일과 23일엔 각각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난 데 이어, 서울 지역 민주당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협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만남에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너무 많이 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시정을 펼치던 오 시장이 총선 패배로 내상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하는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대형 선거 때마다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최초 일조권 소송으로 대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탔

며 환경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던 오 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보수 정당의 소장파로 활약했다.

이후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인 된 오 시장은 재선 시장에 오르며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2011년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할도 열어보지 못한 채 부결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의 협지인 광진구에 공천을 받았으나, 민주당의 정치신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

직에 복귀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주자보다 오 시장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전 위원장이 21.3%, 홍 시장 12.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7.3%로 집계된 가운데, 오 시장은 6.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박태홍 기자